



◆ 미 수은, 상무부와 효과적 수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

미 수은과 미 상무부(Department of Commerce)는 자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및 자금지원 절차의 단순화·합리화를 위해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에 따른 양해각서(MOU) 체결을 발표했다.

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과 무역금융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해 미 수은에 도움을 청한 고객기업은 필요시 상무부의 무역정보센터(Trade Information Center: TIC)와 즉시 연결된다. TIC의 전문가들은 수출의 개시, 문서작성, 국가정보, 관세 등과 관련하여 연간 7만여 건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, 여기에는 미 수은의 직원도 상주하면서 미 수은과 관련된 정보

를 제공하고 있다.

또한, 외국에서의 조달계약 응찰 관련 정보를 구하기 위해 상무부의 무역지원센터(Trade Advocacy Center: TAC)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출기업은 미 수은의 수출금융 관련 정보망에 연결되며, TAC와 미 수은의 공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이번 양해각서는 미국 기업의 해외매출 및 신규고용을 증대하고자 각 수출지원기관의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, 무역진흥조정위원회¹⁾(Trade Promotion Coordinating Committee)가 정부의 수출지원 업무를 성공적으로 조정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.

【임 천 일】

1) 상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국무부, 국방부, OPIC, TDA, USTR, 미 수은 등 총 20개 정부 부처·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며, 1993년 이래 매년 '국가수출전략'을 수립해오고 있음.